

순천시, 동선 숨긴 코로나 확진자·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고발

역학조사 방해 1명·대면예배 강행 등 교회 2곳 고발...교회 1곳 조사 중

BTJ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의 순천 장례식장 6곳 조문 금지 행정명령

전남 순천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교회 등을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

한 확진자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고발했다.

A 씨는 최근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상주BTJ열방센터를 방문했음에도 방문 사실을 숨기고,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순천시는 또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됐음에도 대면예배 금지를 위반한 B·C교회 2곳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위반으로 5일 고발했다.

D교회 1곳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B교회는 지난달 27일 30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강행한 바 있으며, C교회는 지난달 31일 비대면 예배목적으로 40명이 참석해 기준인원을 초과한 혐의다.

확진자의 동선에 해당 교회가 포함돼 80여 명이 자가격리되는 등 행정·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답화문을 통해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롯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

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다"며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시는 5일 순천시의 장례식장에서 BTJ열방센터, 인터콥 선교회 관계자의 조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17일까지 순천

시 내 장례식장 6곳의 조문이 금지되고, 어길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순천지역에서는 2021년 새해부터 4일 만에 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3차 대유행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α'를 시행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거주지 인근 성범죄자 정보 모바일 고지 서비스 시작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인근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가 시작된 5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모바일로 도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n번방 아동·청소년 음란물 167개 시청男...벌금 500만원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67개를 시청하고 1년 2개월 동안 보관한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정문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께 강원 홍천

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67개를 시청하고 복제·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가 불법으로 시청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운영자인 갖가지가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이 사용 중인 인터넷 저장소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에 위 파일들을 복제·저장하고 2020년 5월 25일까지 보관하는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도 소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애를 초래했다"며 "그 정도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그 정도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압수수색 전에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한 사실, 이 파일을 다른 곳에 유포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방역 지침 형평성 어긋난다" 광주 유흥업소 집단 행동

17일까지 '간판 조명 점등·가게 문 개방' 등 준법 투쟁

광주 지역 유흥업소들이 정부의 엄중별 방역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 집단 행동을 나선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는 회원 업소 700여 곳이 5일 오후 7시를 기해 각 영업장마다 간판 조명을 켜고 출입문을 열어 놓는 형태로 준법 투쟁을 펼친다고 밝혔다.

업소들은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자 영업은 하지 않는다. 손님이 방문할 경우에도 정부 방역 지침의 문제

점을 설명한 뒤 귀가를 안내한다.

이번 집단 행동은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 방역 대책이 끝나는 이달 17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유흥주점 업주들이 시정을 항의 방문, 집단 행동의 취지를 알릴 계획이다.

만약 유흥시설 집합 금지 등의 방역 지침이 17일 이후에도 유지될 경우, 영업 강행도 불사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은 영업시간대·업종에 따라 확산되지 않는다. 음식업이나 노래연습장은 출입 인원 제한만 유지하면서 유흥주점은 영업 자체를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대상 피해 금융지원도 유흥시설은 받지 못한다. 생계 위기에 봉착한 업주들은 격양된 상태다"며 "당국이 납득할 수 있는 방역 대책과 적절한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광주 요양시설 확진자 전담치료병상 확대...내일부터 운영

기존 환자 전·퇴원...30병상에서 120병상으로 늘려

광주 요양병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전담 치료시설 운영이 다소 늦춰진 가운데 수용 규모가 당초 30병상에서 최대 120병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담요양병원(헤아림)에 따르면 간병이 필요한 요양시설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으로 지정된 헤아림요양병원의 병동 내부 공사가 완료되면 7일부터 확진환자 수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방역당국은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운영이 6일 오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전날 이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감염병 전담치료 시설 공사와 기존 환자 이전이 순탄하지 않으면서 운영 시기가 미뤄졌다.

현재 병원 측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1층부터 칸막이 공사를 진행 하고 있다. 이 공사는 6일 오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6층에 마련된 병동도 기본 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병상도 1인실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에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인 확진자가 입원할 것으로 보여 기존 전담병원과는 다르게 간병에 필요한 보호 장비도 추가된다.

또 기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확진자 전담요양병원 지정으로 인해 불안해 하고 있어 병원 측은 전체 퇴원 또는 전원조치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는 환자 120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모두 요양병원을 빠져 나감에 따라 병원 측은 확진자 전담치료



광주지역 요양시설 코로나19 확진자 전담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광주 북구 헤아림요양병원에서 5일 오전 기존의 환자들이 퇴원하고 있다.

병상을 기존 30병상에서 120병상으로 늘려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30병상을 운영할 의사 3명과 간호사 15명, 요양보호사 등 의료진 81명은 구성이 완료됐다.

입원환자가 30병상을 넘을 경우 방역당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김미희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